오늘의 게시판

전남도 부시장·부군수회의 오전 10시30분 전남도청 상황실

행사 〈6일〉

▲전남도 부시장·부군수회의=오전 10시30분 전남도청 상황실.

▲제 1회 광주시장기 어르신 건강체전=오전 10시 광주시 서구 염주실내체육관. 광주지역 60세 이상 노인 3천여명이 참석 예정. 게이트볼·족구 등 체육대회. 점심 및 티셔츠 제공.

▲광산업 투자 환경설명회=오후 1시40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항공우주산업 정책연구회=오후 3시 광주 테크노파크 3층 중회의실. 조선대 이상기 교수가 '광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

▲여성기업 멘토링 결연식=오후 3시 광주전남지방중기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등 35명 참석.

▲제 1회 순천 복지 박람회=오전 10시 순천시 장천동 옛 시민회관 주차장.

▲영호남 생활체육친선축구대회 참가선수단 환영만찬=오후 7시 광주시 프린스호텔.

〈7일〉

▲제 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오전 10시 광주시 염주실내체육관. 광주지역 사회복지 담당자 및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 1천200여명 참석 예정. 오전 10시30분 목포 실내체육관.

▲2006 광주비엔날레 전야제=오후 6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구 전남도청 분수광장.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 도올 김용옥 선생 등이 참석 예정으로, 7가지 무지개 색깔을 주제로 '럼블피쉬','동요나라 노래천사', 태진아, 신효범,서영은,김현정 등이 출연.

▲상생협력 지역순회 토론회=오후 2시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 대회의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사회로 상생협력방안 토론회.

▲제 28회 서남권 아카데미=오후 3시30분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노혜진 줄리엣 카운셀링센터 원장이 '성격 좋은 아이는 부모가 만든다'라는 주제로 강연.

공연

▲김미숙의 '전통춤의 향기', 그리고 '하얀 눈물'=6일(수)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크라운 해태 국악 한마당=6일(수)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김홍석 독창회=7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비몽''청산에 살리라''눈마을' '가시꽃 사랑''그대 창밖에서' 등 공연.

▲문명자 명창 가야금 병창공연=7일(목) 오후 7시 빛고을 국악전수관.

▲가족 뮤지컬 '빨간 모자와 늑대'=7~8일 오전 10시, 11시 10분 광산문화예술회관.

전시

▲천연염색 국제전=12일까지 구 전남도청 전시장.한국 28명·대만 4명·일본 1명 등 작가 33명이 출품한 섬유 미술작품과 문화관광상품 등 60여점 전시.

▲호예도회 회원전=11일까지 무등예술관. 전통도자기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생활도자기와 도자편들을 이용한 설치작품 등 30여점 전시.

▲강일호 개인전=6일까지 자미갤러리.

▲오픈 스튜디오=11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

▲타향속에 삶과예술=11월 14일까지 의재미술관.

▲몽당연필전=11일까지 북구청 갤러리.

▲가죽공예 단체전=14일까지 일곡 갤러리

▲광주·전남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풀어야 할 매듭, 을사늑약 특별기획전'=9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1층 전시실. 을사늑약이 체결되기까지 과정, 고종 황제가 서방 각 나라에 을사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낸 친서, 이완용 등 을사오적 관련 자료 등 60여점 전시.

▲백담 무비천 혜강스님 원극학 미술 특별전=20일까지 광주시청 시민홀.

숨은그림찾기

< 37 >

▲ 지난주 정답

열대어, 종이배, 고추, 구두, A자, 못, 펜촉, 셔틀콕, 스푼, 몽당연필

찾아보세요 송사리, 못, 다리미, 바늘, A자, 은행잎, 고추, 스푼, 펜촉

◀숙제

초등학생 짱구가 5대양 6대주에 대해 알아오라는 숙제를 들고 고민하고 있었다.

마침 시골에서 올라오신 할아버지께서 그런 짱구를 불러 숙제를 도와주겠다고 하신다.

"5대양은 말이다. '김양, 이양, 박양, 최양, 정양' 이라고 쓰면 되고…, 6대주는 '양주, 소주, 맥주, 포도주, 동동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막걸리' 라고 쓰면 된다."

그대로 받아 쓴 짱구는 다음 날 선생님께 혼나고 돌아왔다.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짱구에게 하시는 말씀.

"아참, 내가 깜빡하고 탁주를 막걸리라고 적어줬구나…."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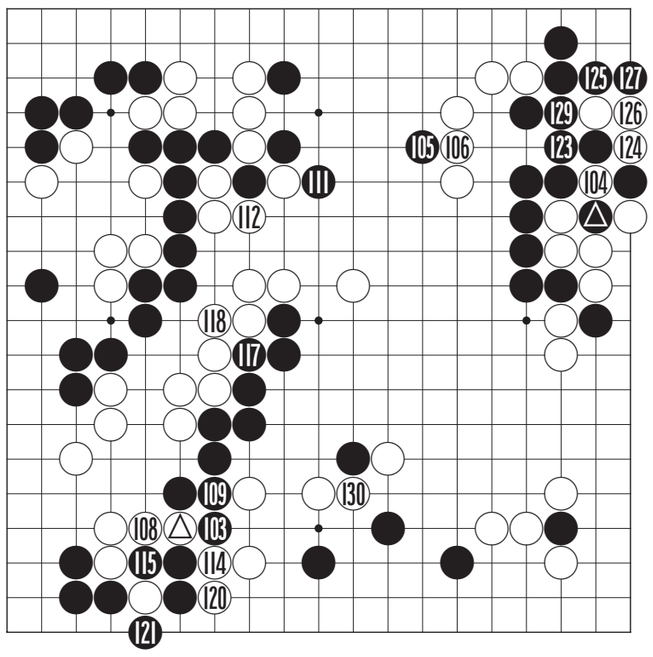
박민철·광주시 북구 운암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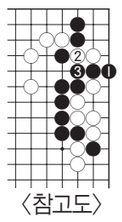
이경영·광주시 동구 남동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최후의 승부처 제7보(103~130)

白 허우석 5단 〈광주광역시청A〉 黑 이강민 5단 〈PCA생명〉





〈참고도〉

백 △가 의미심장한 팻감이다. 수가 나지 않는 곳도 패를 하다보면 팻감을 적게 내주려고 응수를 잘못해 수를 내주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 수가 그런 경우다.

우변은 사실 흑이 '참고도'의 흑 1로 내려서고 백 2에는 3으로 이어서 기분만 나쁠 뿐 별 수가 없었던 곳이다. 이것을 이 5단이 기세로 패로 버티면서 백에게 빌미를 준 셈이다.

허 5단은 이 패를 무조건 이기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5단의 기세도 꺾고 역전의 실마리를 찾아내야만 한다. 결국 이 5단은 견디지 못하고 123으로 후퇴하여 패를 양보하고 말았는데 애초에 '참고도'처럼 응수한 것에 비해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

허 5단은 일단 상대를 굴복시키고 나서 130으로 다시 무시무시한 승부수를 던져왔다. 이곳이 싸움이 최후의 승부처가 되고 있다. 107, 113, 119~▲, 110, 116, 122-104의 곳.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바둑소식

황준원 9단, 허장회 9단 제압

황원준 9단이 지난 4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8기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32강전에서 283수까지 가는 접전 끝에 허장회 9단을 흑 5집 반승으로 꺾고 16강에 안착했다

이 대회에서 가장 먼저 16강에 진출한 황원준 9단은 유창혁 9단 대 최철한 9단의 대국 승자와 8강 진출을 다툰다.

전기에는 이세돌 9단이 최철한 9단을 누르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전문기사 9단만 참가할 수 있는 맥심커피배의 우승상금은 2천만원. 이번 대회에는 이창호, 조훈현, 김인 9단을 제외한 총 38명이 참가했다. 제한시간은 각 10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진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뉴스퀴즈

28.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이 사람을 내정했습니다.

전임 부총리가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지난달 7일 공식 사퇴한 지 25일 만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공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현 정부 출범 후 6번째 교육부 총리가 될 충북 청주 출신인 이 후보자는 누구일까요?

① 김신일 ② 김병준 ③ 이돈희 ④ 이해찬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6일(윤 7월 14일 戊戌)

子 36년생 불필요한 구매로 과소비가 있을 수 있다. 48년생 작은 것은 소중한 것이다. 60년생 직장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72년생 현실성이 없는 일을 일찍 포기하라. 84년생 돈은 생기나 소비가 크다.
행운의 숫자 : 03, 43

丑 37년생 어른의 지혜를 보여줘라. 49년생 너무 무리한 일은 벌리면 손재가 크다. 61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긴다. 73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있으니 멀리 찾지 마라. 85년생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인덕을 베풀어라.
행운의 숫자 : 13, 23

寅 38년생 고통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 50년생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꿈을 크게 가져라. 62년생 평범한 것이 좋은 것이다. 74년생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일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행운의 숫자 : 05, 26

卯 39년생 이왕 출발했으면 앞만 보고 가라. 51년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려보라 만족하리라. 63년생 옛 친구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는다. 75년생 쓸데없는 걱정은 버려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2, 44

辰 40년생 불연이면 이별할 수도 있으니 가정불화는 피하라. 52년생 타인의 입으로 구설수가 생길 수도 있다. 64년생 바퀴달린 것은 모두 조심해야 하리라. 76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라.
행운의 숫자 : 17, 28

巳 41년생 추억은 아름답지만 과거에 억매이지는 말아야. 53년생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다. 65년생 걱정을 버려라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내용이다. 77년생 정도를 걸으면 해는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18, 40

午 42년생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54년생 득도 많고 실도 많은 날이니 마음을 비우라. 66년생 조상의 묘를 찾아보면 마음이 평안하리라. 78년생 감정의 변화가 심한 날이니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행운의 숫자 : 34, 35

未 43년생 아침은 무력하나 오후는 활발해진다. 55년생 친구와 만나서 술 한잔하면 용기가 생기리라. 67년생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면 친구가 많으리라. 79년생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행운의 숫자 : 24, 45

申 44년생 맛있는 음식은 친구와 나누어 먹어라. 56년생 친구에게서 좋은 소식이 전해온다. 68년생 옛 문서는 버리고 새로운 문서를 잡는다. 80년생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라.
행운의 숫자 : 16, 27

酉 45년생 주변의 달콤한 말은 믿지 말라 독이 된다. 57년생 다투면 손재요 양보하면 득이 된다. 69년생 지금은 고통이지만 내일은 행복하다. 81년생 여유 있게 행동하면 득이 되고 급하면 실이 된다.
행운의 숫자 : 22, 42

戌 46년생 자식에게 신경을 써라 자식은 자신의 희망이다. 58년생 실물이 예상되니 문단속을 잘하라. 70년생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 기도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82년생 오늘은 귀를 막고 지내라.
행운의 숫자 : 09, 39

亥 47년생 오늘 하루는 편안하게 쉬어도 된다. 59년생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라. 손재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71년생 오래 동안 막힌 일이 해결된다. 83년생 처음은 괴롭지만 나중은 행운이 다가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0, 30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727>

be planning to~

~ 할 계획이다

A:How far are you **planning to** go today?
B:Until chapter 3.
A:How many pages more?
B:About 6 pages. Not much.
A:Good luck!

A:오늘 어디까지 나가실 **계획입니까**?
B:3장까지야.
A:몇 페이지나 더 나갑니까?
B:약 6페이지야. 많지 않아.
A:다행이다!

be panning to + 동사원형 : ~할 계획이다
= plan to +동사원형=plan on+(동)명사
〈유사표현〉be going to~
=intend to~=be think of ~ing
I'm going to marry her.
I intend to buy a car.
I'm thinking of taking the job.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727>

ああ お腹(なか)がペコペコね!

아, 배고파!

A:**ああ お腹(なか)がペコペコね!**
B:ぼくもペコペコ。腹(はら)と背中(せなか)がくっつきそうだよ。なんか 食(た)べにいかない?
A:そうね、何する? ぎゅうどんなんかどう?
B:ぎゅうどん?そんなんで、お腹いっぱいになるの?

A:아, 배고파!
B:나도 배고파, 배가 등가죽에 달라붙는 것같아. 뭐라도 먹으러 안갈래?
A:그래, 무엇으로 하지? 규동같은거 어때?
B:규동? 그걸로 배가 불러?

ペコペコ : 배가몹시고픈모양
背中(せなか) : 등
くっつく : 착 달라붙다
ぎゅうどん : 규동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445>

我要开一个帐户。

통장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자 이야기 <345>

背水陣 (배수진)

등 배, 물 수, 진영 진

배수진(背水陣)은 강을 등지고 진지를 만들어 적에 대항하는 것으로, 도망칠 수 없어 죽을 각오로 싸움에 임하게 된다. 따라서 실패하면 죽을 각오로 일의 성패를 도모함이다.

유방이 한신의 재능을 알아보고 장군으로 임명하여 조나라 반란군을 진압하게 하였을 때, 한신은 다음처럼 작전 명령을 내렸다. "먼저 가벼운 차림의 기습대원 이천명에게 붉은 깃발 하나씩을 가지고 적의 성 가까운 곳에 기다리게 한다. 다음에 주력군을 산기슭의 강을 등지고 진을 짜게 한다. 그러면 적이 성을 비워두고 공격에 나설 것이고, 그 때 기습대원은 성으로 들어가 한나라 깃발을 세워라." 여기서 한신이 사용한 계책이 배수진이다. 한신의 작전에 말려들은 조나라 군사는 결국 뿔뿔이 흩어지고, 한신 쪽은 대승리를 거두었다.

승리의 자축연에서 전술의 출처를 묻는 장수들에게 한신은 '손자병법'의 "사지(死地)에 놓이면 비로소 살 수가 있다."는 말을 인용하였다.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면 강해지는 법이므로, 자신은 배수진을 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한신의 발상(發想)의 전환(轉換)에서 나온 승리였다. 유연한 사고의 승리라고 하겠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